사단법인 국제 기아·질병·문맹 퇴치 민간기구
한국제이티에스

표지사진 : 농업지원을 통해 생산되는 옥수수는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양식됩니다.

JTS 통권 22호 3·4월

펴낸날 : 2000. 3. 9
펴낸이 : 법 륜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윤기희, 김애경, 한갑수, 장옥희
이수진, 설성봉(부산JTS)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0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ungto.org
인터넷 : http://www.jungto.org/jts

인 도

4 인도 둥게스와리 소식
- 이덕아 (인도사업책임자)

6 특집-수자타아카데미에서 보낸 6개월
자원봉사자들의 소감, 성과

북 한

8 지금 북한에서는 | 라진·선봉 현지보도
먹는 것이 약입니다.

9 특집-북에 다녀 온 사람
북녘은 정말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 윤기희(JTS상임이사)

11 결연탐방 인터뷰 아홉번째 | 부산 청년정토회

청소년

14 아름다운 청소년 | 청소년을 위한 통일 맞이 교육

그리고

16 *함께 동참합시다.*
JTS가 함께하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24시간 1000일 정진 및 통일학교-

17 JTS 홈페이지 소개 | 클릭! 클릭! JTS

18 활동보고 및 안내

22 회원의 소리

23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24 물품후원 및 후원금 현황

25 결연 단체 | 새롭게 엮었습니다
개인 / 단체 결연 현황

30 후원 프로그램 안내
이렇게 동참해 주십시오

이 덕 아 /한국 JTS 인도사업 책임자

마을주민들에게 담요, 학생들에게 신발및 문구류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오신 성지순례참가자 129여명과 함께 수자타아카데미 6주년 기념행사와 4개의 마을유치원 준공식를 치루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국에서 후원하신 분들의 성금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생활필수품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담요 2500여장(옆마을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 250가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월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인도의 겨울이라 식량보다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물품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옷이 남루하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경우가 드뭅니다. 맨발로 돌산을 넘어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발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예쁜 흰 운동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자타아카데미 초등학생과 유치원, 9개의 마을유치원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한국에서 후원한 문구류(크레파스, 스케치북, 연필, 노트 등)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빛과 활짝 웃는 모습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기봉사팀이 도착하였습니다.

서울의 불교단체인 〈청년정토회〉에서 7명의 교사팀이 수자타아카데미에서 2주일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자타아카데미 6주년 개교기념식과 4개 마을 유치원 개원식을 준비하고 행사 후 뒷정리 등을 하느라 매우 분주하고 힘에 겨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대부분 4, 5년전에 수자타아카데미 기초공사를 할 때 다녀가신 분들이어서 아름답게 변한 학교의 모습과 구걸을 하던 거지 아이들이 어느덧 학생이 되어 깔끔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는 그 동안의 후원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시며 뿌듯해 하셨습니다.

국제 워크캠프를 수자타아카데미에서…

IWO(International Work Origanization)와 제이티에스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한국인 5명, 독일인 1명, 네팔인 1명, 인도인 1명이 참가한 국제 워크캠프가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자재를 가지고 마을에 집을 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 참가자들 나라의 문화교류와 휴식시간을 갖고 다음 5일간은 수자타아카데미 부설 지이바카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지 노동자들과 어울려 땅을 파고 흙을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캠프기간에 설날이 있어 시루떡과 만두를 빚어 차례를 함께 지내고, 음식문화를 교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월 11일, 2주일간 각 나라와 우의를 다진 이번 캠프를 마치며 내년에는 좀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여 더 깊이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중앙일보와 함께 한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작년 9월 6일, 부푼 가슴과 약간의 설레임을 갖고 서울을 출발한 6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3일부터 수자타아카데미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현지 적응 훈련기간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각자 희망하는 일을 맡아 1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12월에는 수퍼싸이클론으로 피해를 입은 오리샤의 아스마 지역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옮겨 3주간 폐허된 마을에 집을 지어주고 유치원을 복원시키는 일을 둥게스와리 지역 마을 지도자 및 유치원 교사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2000년 1월은 수자타아카데미가 1년 중 가장 분주한 때입니다. 학교를 찾아온 120여명의 순례객 손님들을 맞아 편안한 잠자리와 맛있는 한국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2월 14일, 봉사활동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 그 동안 정들었던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현지인 교사들 모두 다음에 다시 찾아와 주기를 갈망하며 아쉬운 이별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고된 노동을 하고 음식과 물이 맞지 않아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였지만, 현지인들과 우정을 나누며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6개월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있어서 참으로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보낸 6개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앙일보와 함께 모집하여 인도로 파견되었던 '독수리 5형제'가 6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온 보고회를 3월 18일 3시부터 제이티에스가 있는 정토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보고회 전에 살짝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요? 많은 얘기들을 실을 수가 없어 작은 꼭지별로 그들의 느낀 바를 그대로 실어봅니다. 자기것만을 찾으려는 요즘 젊은이들의 세상속에 이들의 실천은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당신들이 베푼 큰사랑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상술 (남, 29세, 대학원 재학, 자원봉사자 팀장)

〈오리샤에서〉

오리샤 1차 파견때는 몸이 안 좋은 상태라 못갔었다.

손꼽아 2차 파견날을 기다렸다. 길가의 가로수와 전봇대 넘어진 것들, 그리고 소가 죽어있는 모습, 간간히 사람의 뼈....이런 것들은 피해당시의 잔혹함을 말해주었다. 그곳에서의 생활 모두가 인도식이어서 조금 불편했었다. 화장실 문제, 물 문제, 그리고 같이 갔었던 인디언 봉사자들과의 관계. 날씨까지 더워서 일 하는데도 무척 힘들게 했었다. 그러나 한집 한집 지어주었을 때의 흐뭇함, 특히 남편과 아들이 죽어 부인과 딸만 있는 집은 손길이 한번 더 갔었다.

힘들 때 쯤 옆 캠프의 힌두 봉사자들이 많은 힘이 되어 주었다.

윤희경 (여, 30세, 전도사대학 재학)

〈했던 일에 대해〉

저는 마을 유차원에 점심을 배달하고 급식하는 일과 의료 체크 및 간단한 치료를 해왔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때 그 많은 피부병과 뾰루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의 분위기에 차차로 익숙해질 무렵 '이것은 내 일이다.'라는 강한 느낌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비누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의 상처부위를 씻기고 약을 발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한지 몇 주 후부터 우리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날씨가 점차로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인지 아이들의 피부병과 뾰루지는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그 동안 아이들에게 청결에 대해 인식을 못시켜 줬다는 것, 그저 급식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돌아오기 바빴던 날들을 반성해 봅니다. 하지만 음식을 배달하면서 달(스프) 국물에 옷이 젖던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추억에 잠기게 될 것 같습니다.

천재홍 (남, 25세, 대학교 재학)

〈인간관계에 대해〉

오리사에 갔을 때 현지인에 대해 싫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되돌아본다. 떠나기 전 이어서일까? 모든 사람들이 이쁘게만 보인다. 그리고 내가 짜증내고 투덜거려도 계속 주변에 있어 준 인도친구들, 나중에 꼭 다시 보고싶다.

함께 간 멤버들 사이에 때로는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좋다. 현지에 있는 동안 거쳐간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강유선 (여, 23세, 대학교 재학)

〈하루일과에 대해〉

나의 하루일과는 아침 5시 40분에 시작하는 family gathering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5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간단한 체조를 한 뒤 법당으로 가서 meeting에 참여하고 아침 쉬람단(주로 부엌일)을 하고 아침식사하고 마을 Pre-school에 다녀와서 점심먹고 현지 책임자분이 저녁 일거리를 주시면 그 일을 하고 (주로 박스정돈, 청소 등) 자유시간을 좀 갖다가 저녁식사, 그러면 하루일정이 끝이 난다. 취침시간은 9시 30분, 잠이 많이 늘었다.

아침식사는 주로 한국식으로 먹었고 점심, 저녁은 인도식으로 했다. 한국식으로는 된장국, 김치찌개 등을 인도 실정에 맞게 조리해 먹었다. 인도식은 짜빠띠, 삽지, 달, 뿌리 등이었다. 처음엔 골라먹기도 했지만 지금은 가리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입맛에 잘 맞는다. 잠자리는 아주 좋았다. 우리방은 여자 자원봉사자 3명과 개인적으로 온 자원봉사자 1명, 이렇게 4명이 같이 썼다. 함께 해서 참 즐거웠다.

이지영 (여, 23세, 대학교 재학)

〈다음을 위해〉

우리의 경우엔 1기라서 그런지 적응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문적인 봉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곳에는 많은 한국인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긴 인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곳이라고 본다. 절대 중심이 한국으로 넘어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으로서 기술을 가진 쪽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전체적인 일에 관여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맞는 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그들이 알고 있다. 또 인도인은 인도인끼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나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는 것 같다. 나중에 Guest House 가 지어지면 인도인과 한국인이 같이 섞여 살면 좋겠다.

문제가 많겠지만 그러면서 이해해 가는게 아닐까? 여하튼 이런 일이 내 것 챙기고 내 욕심 채우기에 바쁜 사회풍토 속에서 내 것을 나누고 내 욕심을 버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배우는 데는 더없이 좋은 것 같다.

먹는 것이 약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1월에 방학을 했습니다. 유치원에 나오면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영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길 좋아합니다.
이제는 방학이라서 집에 있지만 달달하고 고소한 영양식 생각이 나는 아이들은 방학에도 가끔 유치원에 나와서 영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방학하기 전에는 얼마전에 나누어준 공책과 연필로 공부도 했습니다. 공책은 잘 찢어지지 않고 연필에는 고무가 달려 있어 참 편리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글씨도 또박또박 깨끗하고 정성껏 씁니다. 오래쓸 수 있도록 아껴쓰겠다고 합니다.
탁아소는 방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탁아소에 나오고 있고 젖먹이 아기들에게는 분유를 먹이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영양식을 먹입니다. 아이들은 피부도 반짝이고 전보다 감기나 자잘한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역시 먹는 것이 약인가 봅니다.

북녘은 정말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윤 기 희 (한국JTS 상임이사)

나는 지난 2월 4일-2월 5일 이틀간 북한의 남포를 다녀왔다.

국제옥수수재단에서 보내는 비료와 의류를 실은 배를 타고 울산항을 출발하여 이틀간의 항해 끝에 남포 입구에 도착한 것이 2월 4일 아침. 그런데 남포 앞바다가 얼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얼음을 깨면서 남포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북한이 자랑하는 서해관문을 통과하여 남포항까지 2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참 이상했다. 분명히 남포항 주변에 남포 시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처음 보는 북한 도시의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어 배의 갑판위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밖을 내다봤으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이유를 항구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밤 10시쯤 배에서 내려 북한의 농업과학원 국장선생(평양에서 온)을 따라 호텔(선원구락부)에 갔는데 주변이 온통 깜깜하고 불빛하나 보이지 않는다. 나를 안내하여 2층 식당으로 가는 호텔 직원이 손에 든 건 라이터뿐이고 식당도 촛불로 밝히고 있다. 가져온 음식도 전부 덜 데워 미지근하다. 당연히 난방도 안되고 있다. 오늘 기온이 영하 17도라는데. 호텔방도 전기가 안 들어오고 난방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말로만 듣던 북한의 전기와 연료사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하루에 1-2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 온단다. 명색이 남포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호텔이 이 정도니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불문가지다. 그래도 나는 방에서 담요를 3장이나 덮고 잘 수나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집도 변변치 않고 옷이나 이불도 없이 이 추운 겨울을 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얼어죽거나 동상에 걸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북한에 도착한 다음날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명절 분위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제 저녁은 평양에서 온 2명과 같이 해물요리로 저녁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은 나 혼자 먹으란다. 자기들은 따로 먹겠다 하나 그들은 아마 아침을 먹지 않거나 아

니면 내가 남긴 반찬으로 밥을 먹을 것이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배급은 중단되고 관리들에게도 1주일이나 열흘치의 배급밖에 안 돌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된다.

그들은 서둘러 나를 떠나 보낸다.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오래 보여주기가 민망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남쪽에서 온 손님을 구정 명절날 점심도 안주고 떠밀어 보내니 서운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서운한 것보다 그냥 보내는 그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겠다 생각하니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호텔을 나서면서 그들과 작별인사를 나눈다.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같은 동포로서 서로의 감정과 느낌은 하나라고 생각된다. 짧은 만남 후에 이별이 나에게 긴 여운을 남긴다.

"윤선생, 잘 가시라요. 우리 다시 만납시다."

다시 배에 올라 남포항을 떠날때 그들이 손을 흔들면서 나에게 외친 그 말이 오래오래 내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슴 깊이 새겨본다.

부산 청년정토회에서 보내온 편지

박 진 현 (부산청년정토회 대표)

토요일 오후 모금을 준비한다.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비라도 올 것 같네."
"비가 와야지. 올 겨울 가뭄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도 꼭 토요일 날 맞춰서 올 것은 없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모금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 같아"
"실없기는..."

또 다시 토요일이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또 토요일 오후가 되었다.
북한 어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금을 나간다.
"오늘은 참 하기 싫네!"
"그래도 즐겁게 해야지"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은 거잖아?"
"하기 싫은 것은 하기 싫은 거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또 모금을 해야지. 다들 그냥 합시다.'
웃으며 진담 반 농담 반 이야기하며 물품들을 하나 둘 씩 점검해 간다.
"어! 오늘도 충전이 되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요."
"아! 또 잊었다. 다음주엔 꼭 충전하겠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예!!!"

동부 버스터미널로 모금을 나간다.
모금을 준비하러 나가면 여러 마음이 일어난다.
준비하면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모금장소에 가는 동안은 약간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워낙 숫기가 없으니까. -평소 모습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금 장소에 도착했다.
오늘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 주실까? 욕이나 먹지 않을까? 온

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은 생각이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냥 가볍게 한 번 해본다.

"어! 보살님"

어느덧 익숙해진 법당 보살님이 오늘도 모금에 동참하신다. 힘이 절로 나는 순간이다.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북녘의 아이들은 『두만강 유치원』 아이들이라고 모금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전한다.

"어! 그러면 통일되면 그 아이들과 두만강에서 물놀이나 할까?"

"참 세상 물정 어둡네. 두만강이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깨끗하게 만들게!"

"나는 마음속으로 응원해 줄게!"

"나는 돈으로!"

그래! 기분 좋다. 일주일에 우리가 조금만 시간내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 내가 잠시 멍하니 있는 시간을 조금만 내면 정말 잘 쓰일 수 있다는 이 기쁜 사실! 몸 속에는 기쁨이 솟구친다.

'하지만 꼭 구걸하는 느낌이 들잖아.'

스스로에게 다시 답한다.

'참 생각이 짧군! 사람을 살리는 일에 구걸이 어디 있냐? 그리고 구걸 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부처님도 구걸하러 다닌 거잖아?' '그것이 또 그런 건가?'

벌써 3월이지만 아직 춥다. 아무리 부산이라고 하지만 2시간정도 밖에 서 있으려면 춥다.

(서울 등 부산 보다 추운 곳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드디어 모금을 시작한다. 어깨띠를 두르고 모금함을 들고 전단을 들고 모금에 나선다. 돌이켜 보면 모금을 할 때만 굶주리는 북녘사람들이 생각난다.

이 문제가 계속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할 텐데.

하지만 그러기에는 나의 고정관념과 물러서는 마음이 너무 크다.

아무리 고민한다고 하지만 이 일은 내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치여 천대받는다.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다른 이의 손목 잘림보다 아픔의 세기가 훨씬 크니까 말이다.

직접 나서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선뜻 돈을 넣어주실까? 다시 점검해 본다.

넣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 들어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 욕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다.

모금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

모금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모금 중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줄 때』『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모금해 줄 때』『처음엔 하기 부담스럽다가도 막상 시작하면 신이 난다. 모금함에 돈이 쌓여가고 손에 있는 전단이 줄어가는 것이 즐겁다』
『처음에 무심히 지나 가다가 나의 이야기에 약간의 반응을 보여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결국 돈을 내어주며 설명을 들을 때』
『아저씨들이 호응해 줄 때와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하며(욕) 지나갈 때, 관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액권을 넣어 줄 때인데...
모금을 하면서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끝까지 쫓아가며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내어주지 않을 때』
『그 놈들 죽어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갈 때』
『얼굴에 싫은 표정도 없고, 기쁜 표정도 없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저도 길을 갈 때 저의 표정이 돌아봐 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군요. 저는 발 밟혔을 때인데...

모금을 하면서 굶주리는 동포를 생각하며, 애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마칠 때가 다 되어서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기쁜 마음(물론 뿌듯함도 함께 있죠)이 더 크게 일어난다.
97년부터 모금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볍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드러나는 이유 없이 하기 싫기도 하고, 일단 머뭇거려지기도 하는 내 모습. 언제까지 이렇게 남의 눈치나 보며 살까. 마음이 무겁다.
사람에 부딪히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제일 큰 것은 내가 그만큼의 열정이 없다는 점인 것 같다.

드디어 모금이 끝났다.
밝은 얼굴의 법우들이 너무 고맙다. 바쁘지만 동참하는 사람들.
역시 세상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한 평생 가벼움에서 출발하여 즐거움으로 꽃피우고 싶다.

언제나 토요일 오후이면 부산의 터미널에서
모금함을 들고 서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토요모금 안내 : 매주 토요일 3시-5시 부산 동부터미널
함께 하고픈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부산 청년정토회 : 051-557-6372)

새롭게 준비하는 청소년을 위한 통일맞이 교육

**21세기는 남과 북이 화해해 통일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지금의 청소년들,
지구촌 유일하게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이 안된 민족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줄여주고
통일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활동하는 시기인 10년 이내에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의 학교에서는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한계점은 교사 스스로 통일의식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자료가 부족하여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천 구산중학교 도덕교사 권영미-
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포함해서 통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학교 선생님들은 물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통일준비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모범적인 통일교육을 마련하여 거부감이 들지 않으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청소년들 스스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나가기에 앞서 영양식을 시식해보고 있는 청소년들

JTS 청소년사업부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바른 이해를 위한
비디오 상영과 자료집을 제공, 함께 공유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세대가 준비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부담을 나누어 효과적인 교육자료를 제공,
공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주인의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프로그램은 4가지입니다.

프로그램 1 : 통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비디오테이프, 교재)
프로그램 2 :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퍼포먼스
프로그램 3 :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통일퀴즈대회
프로그램 4 : 청소년들이 준비하는 촌극이나 노래극
(프로그램 2,3,4는 프로그램 1을 한 후 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학교나 선생님, 청소년들에 의해 선택되며
원하는 만큼 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의와 참여 바랍니다.
(문의 : 587-8995)**

JTS가 함께하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 24시간 1000일 정진 및 통일학교 –

통일된 사회를 준비해 가는 열린 대화마당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통일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

얼어붙은 그간의 세월을 녹여내는 봄날의 햇살처럼 다가올지, 아니면 가슴을 움추리게 하는 쌩쌩 추운 겨울바람으로 다가올지 궁금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얼어붙은 마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다면 통일이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가 생기 있게 살아나면서 어울려 가는 사회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아픔을 나누고 끌어안으며 받아들이는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통일된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토회에서는

아픈 고통의 역사를 밑거름 삼아 평화와 공존의 한민족,

서로를 살리며 조화로운 인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24시간 일초도 빠짐없이 1000일간의 정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간 북한식량난의 실태조사 및 탈북난민을 지원하는 등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해왔던 (사)좋은벗들은 통일된 사회를 준비해 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생활 곳곳의 실제적 준비를 해나가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 143]**을 1000일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에 진행합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다가올 통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JTS는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영양식을 먹는 그 아이들을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서 입니다.
몸으로는 그들을 돕고 가슴으로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1000일 정진과 대화마당 143」에 동참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함께 하는 세상은 작은 실천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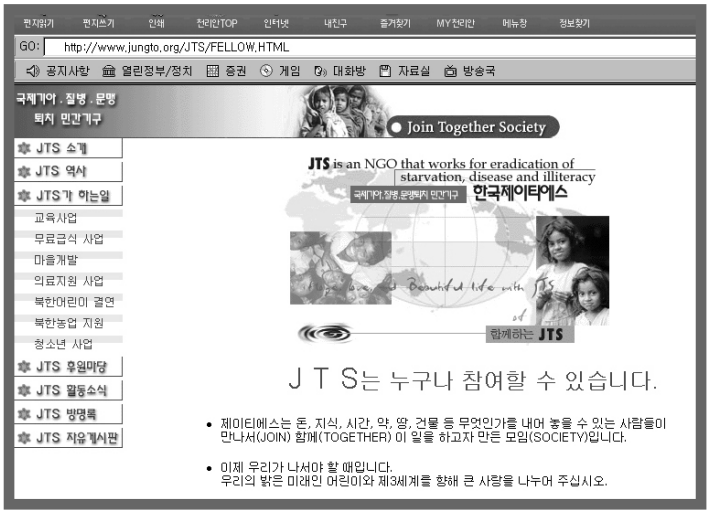
(통일특위: 587-8994,8755)

homepage에서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http://www.jungto.org/jts

JTS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셨나요?
맑은 인도아이들의 눈동자와 북한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JTS에 관한 다양한 안내와 활동소식,
그리고 회원님들게 못다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JTS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얼마든지
말씀해주세요.
하루에 한번! 가족과 친구와 꼭 들렀다 가세요.
가실때는 말없이 가지 마시고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방명록에 진달래꽃 한아름 뿌려 놓을께요

클릭! 클릭! JTS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국제협력단에서 2000년 사업지원

지난 2월 22일 국제협력단에서 2000년 지원사업으로 인도 둥게스와리 현장에 병원 건축비로 3천만원을 지원 받는 약정체결식을 국제협력단 1층 대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지난해 1층 건물공사 지원사업에 이어서 2층 건물을 증축해 가고 의료기 구입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하는데 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쓰여질 것입니다. 병원은 금년 12월 완공되며, 하반기부터는 병원 1층 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 성지순례 및 후속모임 개최

1월 9일-24일에 걸쳐 한국, 미국에서 참가한 129명이 인도 성지순례 및 수자타 아카데미 견학을 했습니다. 이때 수자타아카데미 6주년 기념식 및 4개 마을유치원 준공식에도 자리하셔서 많은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순례에 참가하신 분들과 한국에 있는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둥게스와리 마을주민들에게 담요 2,500장,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운동화, 문구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2월 19일(서울 정토회관), 26일(부산 정토법당)에서 후속모임을 갖고 순례비디오 상영과 마음나누기를 하였습니다. 순례중의 감동과 인도에 대한 느낌을 깊이 있게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국제워크 캠프기구」에서 인도 현지 워크캠프 개최

1월 30일 - 2월 10일 사이에 국제워크캠프기구에서 한국인 5명 독일인 1명 네팔인 1명, 인도인 1명이 참가하는 워크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마을의 집수리, 병원 건축 등의 일감으로 서로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교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차 국제NGO 인턴 자원봉사자 귀국, 이화승 부장 활동 보고회 개최

지난해 9월-2000년 2월까지 인도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한상술씨외에 4명이 2월 17일 이후 봉사를 마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했습니다. 5명 봉사자의 책임자로 인도 현지에 파견되었던 자원개발부 이화승부장도 2월 29일 귀국하였습니다. 3월 7일 정토회관 강당에서 간단한 활동보고회를 먼저 가졌습니다. 이부장은 3월 20일경 다시 인도로 돌아가 대외연대부문의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수자타아카데미의 교장선생님 '슈레스 찬드라 보드'(Suresh Chandra Bauddha) 연수차 2년간 한국생활

2월 29일 수자타아카데미의 슈레드 교장선생님이 2년간 연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설립 초창기 멤버인 교장선생님은 연수기간 동안 한국어 연수, 컴퓨터 교육 등 활동가로써 필요한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갖습니다. 3월 2일부터 석달 동안(100일)은 불교의 전통 방식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정토회관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첫 번째 훈련과정으로 공양간(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지어 주기 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슈레스 교장선생님의 뜻 깊은 한국생활이 되도록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1TV방영 - '인도천민마을의 아름다운 한국인'

3월 6일 오후 11시 45분-12시 45분까지 60분간 KBS 1(채널 9) TV에서 인도 현지 수자타아카데미가 방영되었습니다. '인도 천민마을의 아름다운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민족리포트」시간에 방영된 프로그램입니다.

현지책임자인 이덕아(선주법사)의 현지생활과 둥게스와리 마을의 상황들이 잘 담겨있습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본 사무국(02-587-8995)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지원 사업

윤기희 상임이사 북한 남포 방문

1월 31일~2월 10일까지 '국제옥수수재단'의 비료 전달을 위해 한국JTS의 윤기희 이사님이 남포를 방문하였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 돌아 오는 길에 발해만이 꽁꽁 얼어 붙어 3일간 바다에 갇혔다가 중국을 경유하여 10일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귀국 후 2월 11일 정토회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북한방문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차분 영양식 원재료 북한에 보냄

라진-선봉지역 유치원·탁아소 아이들에게 줄 영양식 원재료 설탕 10톤과 분유 5톤을 지난 3월 1일 부산항을 통해 라진으로 보냈습니다. 이번 선적은 금년들어 북한에 보낸 2번째 지원입니다.

2000년 북한 농업지원 사업 확정

금년에 북한농업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농장을 선정하고 국제적인 지원물품과 수량, 시기 등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3월말부터 지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JTS는 금년에 북한농업지원을 위해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업자재를 보낼 계획입니다.

청소년 사업

시민운동기금 지원금 확정

올 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통일준비교육'을 위하여 지원금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일세대를 위한 교육에 청소년은 물론 학교와 선생님들, 부모님께서 많은 관심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성수련 추수모임

작년 12월 23일~27일까지 실시했던 실직자녀를 위한 심성수련 후속모임이 정토회관에서 2월 12일 있었고, 12월 27일~30일까지 있었던 학교부적응 심성수련 후속모임이 2월 29일 한국여성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하려합니다

제1차 국제NGO 인턴 자원봉사 활동 보고대회 개최

지난 6개월간 인도현지에서 봉사활동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봉사자 개인에게, 또 인도 현지에 어떠한 점이 유익하였으며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해 보는 자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일시 : 3월 18일 오후 3시-6시　　● 장소 : 정토회관 강당

다음 자원봉사자는 9월부터 6개월간 파견할 계획입니다.
현지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JTS 인도사업부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교육(심화과정)

3월 23일~6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청소년사업부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99년 하반기에 실시하였던 기초과정을 수료하였거나 상담을 전공하신 분, 현재 상담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7회,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6회, 1회의 평가회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청소년사업부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제이티에스 후원의 밤 개최

-다시 손을 잡을 때 입니다-

'제3세계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JTS와 함께 시작했던 이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새 희망을 불어 넣은지 벌써 일곱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인도·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한국제이티에스 후원의 밤 행사」를 갖습니다.
그 동안 JTS가 활동해 온 사업에 대해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짚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후원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4월 28일 (금) 오후 6시-8시
● 장소 :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박 상 필
2000년 2월18일

안녕하세요?
불교방송의 박상필 입니다. 인도 후속모임이 있다고 하니 넘 기쁘네요.
'진드기' 언니인 수진 님의 댄싱이 눈에 선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잘 이끌어주신 여러 실무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생방송 끝나고 갈게요.

박 은 영
2000년 3월4일

인도아이들의 사는 모습과 북한 아이들의 초췌한 모습을 비디오로 보고
불현듯 내가 나를 오랫동안 잊고 살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반쪽이 저렇듯 굶고 있고, 저렇듯 병으로 고생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등
돌리고 고개돌려 반쪽이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작기만 하고 나의 힘은 너무나 약하기만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작은 빗방울이 모이고 모여 내를 이루듯
나의 , 그리고 너의 뜻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의 반쪽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반쪽이들은 모두 모이세요.
모여서 바위를 뚫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나가 북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우리의 반쪽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로든지 달려가지 않을래요?

현 정 환 (중학생)
2000년 2월 14일

인도여행.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책들의 감옥에서 벗어나 시간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서울 와서 느낀 거죠. 그것도 책상에 앉는 순간)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수신기를 통해 들려오던 법륜 스님의 말씀,
"자, 5분 있다 출발합니다~ 모두 타세요 못 타신 분들은 릭샤 타고 오세요~"
인도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던 버스 안입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씩은 탔으니까요. ^^;
그리고 울 엄마 먹고 두드러기 난 짜파티, 너무 맵던 커리, 우유 죽, 그리고 이거
기억 하실지 모르지만 "YES생수" ^ ^ 정말 정겹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 아이들
도 보고 싶습니다. 저 중학교 2학년인데 수자타 아카데미에 가면 선생님시켜 주실
래요? 재미있었던 인도 여행.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젠 인도가 남의 나라같지 않
네요. 그리고 모임회도 이번 한번 말고 여러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0년 1월1일~3월 7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서울 및 기타지역

-북한어린이 결연

211-01836-11 김지연
211-01837-11 엄정무
211-01838-11 양영수
211-01839-11 안금자
211-01840-11 김귀숙
211-01841-11 김명주
211-01842-11 유광종
211-01843-11 이병만
211-01844-11 김은숙
211-01845-11 조홍식
211-01846-11 최춘순
211-01847-11 홍영준
211-01848-11 강희숙
211-01849-11 최혜란
211-01850-11 혜학스님
211-01851-11 안응연
211-01852-11 김창효
211-01853-11 신혜정
211-01856-11 정현철
211-01857-11 유서원
211-01858-11 정순덕
211-01864-11 노선혜
211-01865-11 김희숙
211-01866-11 김형숙
211-01868-11 노정주
211-01870-11 김윤희
211-01872-11 이은숙
211-01871-11 김보열
211-01874-11 차규용
211-01875-11 엄옥례
211-01876-11 최성도
211-01871-21 강수현
211-01877-11 장윤정
211-01878-11 신재순
211-01883-11 김명희
211-01884-11 이두원
211-01885-11 조현순

-인도후원

111-02400-14 정돈영
111-02402-14 남재천
111-02403-14 박정현
111-02404-14 류재현
111-02405-14 이인경
111-02407-14 박양진
111-02408-14 박영수
111-02409-14 박은영
111-02410-14 임오심
111-02411-14 정수정
111-01212-14 박선자

부 산

-북한어린이 결연

211-01859-11 문성연
211-01861-11 이철규
211-01862-11 하지연
211-01863-11 오경아
211-01860-11 김광숙
211-01880-11 최수자
211-01881-11 최미애
211-01882-11 김관태

-인도후원

111-02406-14 남경봉

단체결연

212-00150-11 부산 청년정토
212-00151-11 군산대학교 총여학생회
212-00152-11 서울보증보험남대문지점

물품후원 및 후원금 현황

■ 인도 / 북한지원사업에 후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2000.1~3.10 /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물품후원자 명단

-송암스님 (안성 도안사) 의류 1박스
-일산 코끼리 유치원(각성스님) 유치원 용품(추리닝 외)
-태양산업(부산) 운동화150컬레
-탑마트(부산) 비누, 의류
-교보생명(마산) 의류 30박스
-밀레오레 홍보실 신발
-박상원님 의류
-백련사(혜수스님) 의류, 신발
-(주)LG 비누 10박스 (※지난번 소식지에 1박스라고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우평사(부산) 스케치북, 크레파스 (※지난번 소식지에 마산점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미술동오회 SAC(색)에서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에게 동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클라지오(부산) 운동화214컬레
-대한통운 무료택배(41박스)
-모닝글로리 문구류 30박스
-홍원기님 의류
-경인여자대학교 의류

인도사업 지원금으로 후원해 주신분들

김기숙(283,770원, 루피 약간) 진철스님 2,000$ 황옥, 정남식 20만원
이승호 20만원 권도숙 20만원 이방화 100만원 무명 50만원
이차순 100$ 백점례 500$ 정인숙 1000루피 임순옥 13$
김기진, 마경숙 100만원 진철스님 30만원 귀산스님 5만원
성각스님 5만원 김정옥 20만원 이태성, 배영미 10만원
송암스님(안성 도안사) 330$ 최경락 1,000$ 이영옥 20만원
소무영 500만원 조정숙 180만원 이오예(인도 담요보시금) 300만원
푸르덴셜(부산) 생명보험 직원(김수현씨 외 직원)30만원
안성지회 인도쌀 보시금 44만원 우복례(인도 담요보시금) 300만원
미국 : 김신명부부, 양제이미, 최옥순, 윤성자, 최진환부부, 유복점, 이강준 750$
유기애, 홍은자, 김정숙, 양옥분, 방영자(관음사 신도) 300$

북한사업지원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159차 깨달음의장 참가자 일동 27만 5천원

미국JTS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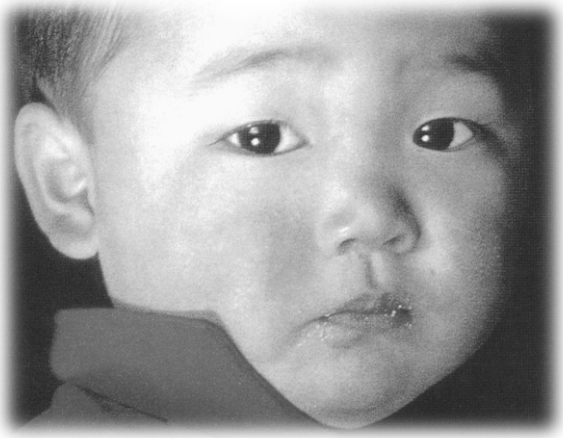
최경자 외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음(인도 마을 펌프) 9,300$
시카고불교실업인회 442$ 뉴저지 한연실 100$
미국 뉴욕 JTS 북한돕기 후원금 8775$

기타

김동수(생일보시금) 150,000

라진 · 선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 2000년 3월 10일 현재 (10,837명 중 5,579명 결연)



단체결연을 새롭게 엮었습니다

지난 2월 2000년에도 계속해서 북한어린이 결연을 해 주실
단체에 대해 문의한 결과 114개의 단체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체크된 것에 착오가 있는 단체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북한 어린이 지원사업을 시작할 때에 비하여
단체 결연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JTS에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영양식 가루를 매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결연에 동참하실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 3. 10 현재 (10,837명 중 5,579명 결연)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 3. 10 현재 (10,837명 중 5,579명 결연)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 3. 10 현재 (10,837명 중 5,579명 결연)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 2000. 3. 10 현재 (10,837명 중 5,579명 결연)

후원 프로그램

단체결연 후원

북한 어린이의 영양 실조 회복을 위한 영양식과 인도 어린이의 영양 실조 극복을 위한 점심 제공
- 한 어린이에게 매일 한끼씩 제공되는 음식값은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을 후원하시는 단체나 후원인께서는 라진-선봉 지역의 탁아소나 유치원 중 한 곳을 지정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북녘어린이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금 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46

기업협찬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이티에스와 공동 캠페인 또는 단체 내 기금모금 프로그램입니다.
물품을 직접 지원하실 경우 실금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이티에스에 기부금을 납부하신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2조 1항 1호 타목, 시행규칙 17조 1항(종전 17조 50호), 부칙(1996.3.21) 7조에 의거, 개인의 경우도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연말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후원접수
02)5810-581, 5878-995

정기 거리모금 행사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거리에서는 북한 어린이 돕기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거리 모금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북한 어린이를 위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품후원

지난해 연말경 몇군데의 기업에서 아이들을 위한 문구류와 의류, 의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북한과 인도의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용품을 기증받습니다.

의약품 : 구충제, 지사제, 안연고, 피부연고, 영양제
문구류 : 크레파스, 색연필, 공책, 연필, 펜 등
그 외 : 옷,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시간을 후원하시는 자원봉사 활동

- 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보다 보람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각 학교, 학년·학급, 개인별로 신청 받아 직접 교육 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집에서 가사활동을 하시는 주부님,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작은정성 큰사랑 캠페인: 모금활동
- 매월 우편물 발송작업
- 워드작업, 인터넷 작업
- 후원가족에게 전화방문 등에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인도현지 파견 자원봉사자 모집 (의사, 간호사, 건축, 농사, 유치원교사 등)